

“희망은 눈 아닌 마음속에 자라는것... 어두운 삶 밝게 세탁 해야죠”

♥ 2014 희망을 주는 사람들 ① 시각장애인 지윤종씨

세탁업주들과 협동조합 '세담' 설립 '천기저귀 렌탈 사업' 본격 뛰어들어 “지극정성 다해 고객들 감동시킬 것”

“희망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2014년 첫 날이 밝았다. 지윤종(42·시각장애인 4급·광주시 광산구 신창동)씨는 새해부터 '희망'을 부르려고 있다.

지씨에게 올해는 특별한 해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던 '천기저귀 렌탈 사업'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하는 '도전의 해'이다.

그의 사업은 생후 12개월 미만 아이들에게 천기저귀를 빌려준 뒤 정기적으로 수거해 세탁해 다시 공급하는 것이다. 천기저귀 대여만 하는 게 아니라 판매도 한다. 아이 피부를 생각하면 일회용 기저귀보다 훨씬 선호하지만, 잦은 세탁 등 번거로움을 이유로 선택하기를 꺼리는 젊은 부모들을 겨냥한 서비스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사업 추진을 밀어붙이는 데 한몫을 했다. 당장, 2일부터 지씨의 희망을 담은 신청 동 공장은 첫 가동에 들어간다.

두렵기도 하다. 전혀 가보지 않았던, 접하지 않았던 낯선 길인 탓에 불안함이 꿈틀거린다고 한다. 확실한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한 채 공장 가동에 나서면서 '서두르는 것 아닐까'

라는 질문이 머리 속에서 떠나질 않는다. 지난해 세탁 공장을 설립한 뒤 시운전까지 끝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과 부담감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자신의 눈처럼 흐릿하기만 했던 지난해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해졌다는 게 지씨 설명이다.

지씨는 눈이 아프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희귀 질환, '망막색소변성증'(RP)을 앓고 있다.

지난 1998년 11월 병원에 들렀다가 생소한 병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평소 시야가 좁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몇 개월 뒤엔 태어날 자식 걱정 때문에 병원을 찾았다 고 했다. 어렸을 때 야맹증을 앓아 남들보다 유독 책상이 부딪치는 일이 잦았던 탓에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들렸다가 알게 됐다는 얘기다. 다행히 중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들이 건강하다고 했다.

하지만 원인과 치료법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의사 말을 듣고 기가 막혔다. 망막세포가 저질로 파괴돼 시야가 좁아지다가 마지막에는 시력을 잃게 되는 질환이라는 설명에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다. 다행스럽게도 병의 진행 속도는 느



지윤종·이선희씨 부부가 곧 정식가동을 앞두고 있는 공장 내 드럼세탁기 앞에서 희망을 꿈꾸며 환한 웃음을 짓고 있다. 이들 부부는 기저귀를 수거해 세탁한 후 되돌려주는 천기저귀 렌탈사업을 시작한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렸다. 수술로 시각장애 3급이던 시력이 4급으로 나아질 정도로 좋아졌다. 하지만 낮에 도로변 간판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등 평범한 일상 생활을 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도 움직이면서 하루에 3~4번 부딪혀 무릎 밑은 땅이 가시질 않는다.

“워낙 많이 부딪혀 이제 웬만한 충격은 신경쓰이지도 않아요” 그룹에도 지씨는 너스레를 떨었다.

지씨의 몸에 난 상처만큼 인생도 순탄치 않았다. 시력이 좋지 않으니 직장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밝은 곳에서는 서류조차 볼 수 없어 기업에 원서를 내는 시도도 못했다. 평범한 직장 생활조차 못하면서 좌절감도 컸다. 낮에도 운전하기가 쉽지 않았다. 밤 운전은 아예 포기해야 했다.

‘신세 한탄’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혼자 할 만한 사업을 찾다 시작한

것이 휴대 전화 판매 대리점. 무턱대고 자신감 하나로 시작했지만 일대한 건물이 부도로 문을 닫으면서 수익원의 손해만 보고 사업을 접었다.

공인 중개사에도 눈을 돌렸다. 아파트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는데다, 자격증을 따면 풀어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했다.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의 서류 등 지원업)일도 병행했다.

하지만 시력이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 눈부심을 피하기 위해 창문 없는 지하실을 사무실로 활용했지만 시야가 좁아지는 증세가 심해졌다. 땅과 건물을 넓게 보고 고객에게 판매해야 하는 직업을 그만둘 수 밖에 없던 이유다.

지씨는 이 과정에서 '천기저귀 렌탈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됐다.

중기기저귀의 폐기량, 광주·전남 지역 산후조리원 현황을 파악한 뒤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안면이 있는 세탁업주 4명과 논의, '세담'이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뛰어 들었다.

초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 중소기업청에 손을 내밀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전남지역센터에서 들은 중소기업청 지원 방안이 계기가 됐고 결국 공장 설립비를 일부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 청결한 환경과 위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작게 만들고 창문을 없애는 등 공장 곳곳에도 세심한 신경을 썼다. 업체명을 조선시대 궁궐에서 빌려온 담당했던 '세담'으로 지은 것도 무관하지 않다.

“에전 공녀들은 임금 의복을 참정성스레 씻고 관리했어요. 그 마음으로 사업을 하면 소비자들이 알아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장이 가동하더라도 직원은 아내 이선희(42)씨 밖에 없다. 이씨가 눈이 불편한 지씨 대신 차량을 운전하면서 기저귀 판매·대여를 맡는다. 지씨는 대신, 공장 관리를 맡는다.

지씨는 거래처가 늘고 취급 물량이 많아지면 장애인들을 우선 채용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포부도 내놓았다. 지씨는 공장 가동을 앞두고 아내와 함께 광주·전남 산후조리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업 설명을 하느라 몸이 열개라도 바쁘다. 하지만 삶의 무게에 짓눌린 얼굴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 때문에 환해 보였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1분 해질 17시 30분 | 다음날 06시 59분 해질 17시 32분

희망찬 새해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해안에 바람 부는 곳 있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맑음	0/7℃
목포	맑음	1/7℃
여수	맑음	1/8℃
나주	맑음	-2/7℃
완주	맑음	2/9℃
구례	맑음	-2/7℃
강진	맑음	0/9℃
에남	맑음	1/9℃
장흥	맑음	0/8℃
순천	맑음	0/8℃
영광	맑음	0/8℃
진도	맑음	2/9℃
전주	맑음	-1/7℃
군산	맑음	-1/7℃
남원	맑음	-4/6℃
옥산도	맑음	4/8℃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 국민연호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날씨	☀	☀	☀	☀	☀	☀
최저/최고	-1/6	-1/8	-1/6	-1/4	-2/5	-1/5

공무원 목인 속 화물차 837대 불법 증차

광주경찰, 공무원 16명 운송업체 대표 9명 적발... 유가보조금 102억 부당 지원

신규 허가 금지된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비롯, 카고 트랙·덤프·트레일러(컨테이너 운송차량) 등 대형 화물 차량을 서류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불법 등록, 부당 이득을 챙긴 화물운송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불법 등록된 화물 차량에 지원된 정부의 유가 보조금도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의 목인과 직무 유기가 범행을 키웠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0일 신규 허가 금지된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 대형 화물차 불법 증차와 관련, 광산구청 공무원 장모(43·7급)씨 등 12명, 영암군청 김모(42·7급)씨, 장성군청 이모(59·6급)씨 등 모두 16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 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10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청했다. 앞서 적발된 고종근 공무원 2명(구속 1명)을 포함하면 불법

증차에 연루돼 적발된 공무원은 18명으로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화물자동차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신규 면허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차량을 불법으로 증차해준 뒤 관련법에 따라 화물협회에 통지해야 함에도, 고의적으로 누락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불법 증차된 차량만 광산구에서 577대에 달했고 장성군 47대, 영암군 213대 등도 불법 증차가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이 5개 월간의 기획 수사를 거쳐 파악한 불법 증차 차량만 1158대에 이른다.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운송업체 관계자에게 사실상 화물자동차 차고지료 사용이 불가능한 자신의 주거지를 차고지로 가장해 준 뒤 임대료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나는가 하면, 1600만원 상당의 중고차 구입 대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공문서를 위위로 작성하거나 관련 업자와 골프 연습장 이용권을

받은 공무원들도 적발됐다. 또 화물운송업체도 34명에서 43명으로 늘어나는 등 연루 인원도 65명으로 크게 늘었다.

경찰은 특히 불법증차한 화물차량에 부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이 102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자치단체별로 보조금을 환수토록 통보했다.

경찰은 또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수사기법을 매뉴얼로 정리한 책자를 제작해 수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경찰청을 통한 전국에서 기획 수사에 나설 계획도 검토중이다.

한편,국토교통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단일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이번 수사 유공자 6명에 대해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김신웅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전국적으로 수사가 확대된다면 업계 경쟁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운송단가 인하로 생기는 피해를 차단해 건전한 업계 화물운송 시장 풍토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감오년 새아침 맑은해 뜬다

무등산 장봉재 07시 34분

고흥 나로도선 07시 36분

청마(靑馬)의 해 새해 첫날 새벽에 해돋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30일 “말미의 해인 2014년 1월 1일 광주·전남 지역은 구름이 조금 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면서 “지역의 주요 산과 바다에서 새해 첫날 해가 뜨는 모습을 보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천문연구원 이 최근 내용은 ‘2014년 1월 1일 국내 주요 지역 해 뜨는 시각’에 따르면 광주 무등산(장

봉재)에서는 오전 7시34분, 고흥 외 나로도선 07시 36분과 오전 7시42분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일출시각은 각 지역의 해발 0m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며 주변의 산 등 높은 곳에서는 더 빨리 해를 볼 수 있다.

한편, 31일 올해 마지막 해돋이를 가장 늦게까지 볼 수 있는 곳은 신안군 흑산면 소흑산도(가거도)로 일출시각은 오후 5시40분. 육지로는 영광 가마미(오후 5시31분)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연탄가스가 앓아간 ‘노부부의 금슬’

순천시 70대 아내 숨져

70대 부부가 연탄가스에 중독돼 아내가 숨졌다.

지난 29일 오전 9시40분께 순천시 저전동 신모(73)씨의 단독주택 1층 큰 방에서 신씨와 아내 황모(여·73)씨가 잠이 든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큰 아들(46)이 발견, 경찰과 소방서에 신고했다.

황씨는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서 이송됐지만 숨졌다.

신씨 부부는 순천의 시장 등지에서 트럭으로 야채 노점상을 하는 큰아들들과 도와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연탄을 이용, 취사와 난방을 해왔다고 주변 지인들은 전했다.

이 날도 단칸방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이 같은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저전동 주민센터 관계자는 “함께 아들을 도와 노점상을 할 만큼 부부 금슬도 좋았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다”며 아쉬워했다.

경찰은 방 바닥이 금이 갈 정도로 주택이 노후된 점, 연탄 화력이 불이 붙어있던 점 등으로 미뤄 벽면으로 연탄가스가 새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순천=김은정기자 ejkim@

마늘은 건강기능식품 식약처 “분말로 섭취하면 효과”

마늘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0일 마늘을 건강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지난 27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마늘의 효능, 효과에 대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인·검토해 “마늘을 분말로 하루에 0.6~1.0g 섭취할 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하루 0.4~1.2g의 마늘 분말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마늘의 이번 기능성 인정은 지난 6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정부 기관이 함께 구성한 ‘국가건강기능식품기술지원협의회’의 활동 성과이기도 하다.

개정안은 또 히알루론산, 홍경천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등을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추가해 제조·수입·유통·판매를 가능하게 했다.

히알루론산은 ‘피부 보습’(하루 섭취량 120~240mg), 홍경천 추출물은 ‘피로 개선’(200~600mg), 빌베리 추출물은 ‘눈 피로 개선’(2,400mg)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다. /연필뉴스

교총·전교조 “시간제 교사 반대”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등 양대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시간제 교사 도입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30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 움직임을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시간제 교사는 수업 이외에 학생과 온종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진학 상담의 직무를 맡은 교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크게 훼손한다”며 “교사의 역할과 함께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무리한 행정일방주의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또 “시간제 교사는 정부가 강조하는 교사들의 학생 인성교육 강화 정책과도 배치되고 교육 주체간 갈등 확산, 교원참제 증가, 교원 간 위화감 조성 등으로 일선 학교의 협력시스템도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임용령 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고, 학교당 학생수 감축과 정규 교원 확충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만나 “정부의 부당한 시간제 교사제도를 전면 거부하고, 단 1명의 시간제 교사도 채용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담배꽂초 쓰레기통에 버렸다가... 집에 불내고 처벌받고

○--재대로 끄지 않은 담배꽂초 때문에 자신의 가게에 불은 낸 50대 남성이 실화혐의로 처벌을 받는다.

○--경찰 감시결과 담배꽂초로 인한 발화로 판단되자 한씨는 경찰에서 “그날 오전 담배를 피우고 꽂초를 종이컵에 넣은 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술을 호소.

○--지난 3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한모(51)씨는 지난 10월20일 오전 8시에 광주시 남구 서동 자신의 옷수선가게에 불을 내 재봉틀 등 집기